

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



제2389호 2025. 2. 23. **연중 제7주일**

제1독서 : 사무엘기 상권 26,2.7-9.12-13.22-23

제2독서 :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,45-49

복 음 : 루카 복음서 6,27-38

발 행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

주 소 :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'작은마음'

이메일 : chota_littlemm@naver.com

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
우리 안에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신답니다.



(2023년 1월 14일 요한 23세 교황 공동체 협회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신 교황님 말씀)

그림 - 가브리엘라 수녀님



오늘의 미사

+ 화 답 송

◎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+ 복음환호송

◎ 알렐루야.

○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

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

◎ 알렐루야.

+ 영성체송

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.

지극히 높으신 분,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,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.

•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(요한 15,9) •

독산 1동 성당 초등부 은총잔치

"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." (루카 6,35)



독산1동 성당에서는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은총잔치가 열렸습니다.

이번 은총잔치는 5월부터 시작된 '은총이 미션'을 통해 친구들이 모은 은총표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미사와 교리, 미사 전후에 자모님들과 함께한 미션을 통해 은총표를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.

행사 당일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

먹거리 코너에는 떡볶이, 팝콘치킨, 컵 과일, 컵라면, 어묵 등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, 즐길거리 코너에서는 손바닥 낙시, 노래방과 게임방코너 등 소소한 게임을 통해 은총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신부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추가 은총표를 얻는 코너도 있었답니다.



체험코너에서는 막대 과자 꾸미기, 셀프 사진관, 모닥불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고, 본부석에 있던 돌림판은 간식과 은총표를 받을 수 있어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'은총잔치 맵'을 받아 각 코너를 돌며 도장을 모아서 기념품과 교환하는 재미까지 더해졌습니다.

이번 행사는 초등부 교사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많은 자모님과 자부님들, 그리고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.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한 은총잔치,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.

(구본옥 엘리사벳 선생님)





신부님 말씀



2지구 성산2동 성당
조인규 마르첼로 신부님

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아요!

✦ 찬미 예수님!

주일학교 친구들,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?

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와 다툰 적이 있나요? 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? 그런 경험이 있다면, 그때 내 마음이 어땠나요? 아마 속상하고, 그 친구를 다시 마주치기 싫고,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.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.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

**“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.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,
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,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.”**
(루카 6,27-28)

예수님의 이 말씀은, 우리가 가식 없는 사랑과 너그러움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자비와 선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물론,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! 왜냐하면,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 만약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면, 지금 바로 성호경을 그으며 기도해 보아요.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,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총을 주실 거예요.



주일학교 친구들이 언제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할게요!



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?

- ①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한다.
- ② 원수도 사랑하고,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잘해 준다.
- ③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꼭 돌려달라고 한다.
- ④ 친구가 실수하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.

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수상작

주님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여서 좋아요.

노원 성당 2학년 구도윤 아론



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

묵동 성당 4학년 권수진 베로니카

